

할머니의 자리

박현정 장편동화 | 김다정 그림 | 별숲 펴냄



- 《할머니의 자리》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 써 보고, 인물의 성격을 말해 봅시다.

<p>할머니</p> 	<p>인물의 성격</p> <p>성격이 급함</p>	<p>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p> <p>재영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몰아붙임. “아무튼! 당장 애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바로 112에 신고할 거야.” (12페이지)</p>
<p>해봄</p> 	<p>인물의 성격</p>	<p>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p>
<p>해봄이 엄마</p> 	<p>인물의 성격</p>	<p>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p>
<p>할머니</p> 	<p>인물의 성격</p>	<p>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p>
<p>재영 아저씨</p> 	<p>인물의 성격</p>	<p>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p>

할머니의 자리

박현정 장편동화 | 김다정 그림 | 별숲 펴냄



- 커다란 식탁을 ‘오이마켓’에 팔자고 하는 해봄이에게 할머니는 식탁이 ‘가족 같다’ 말하며 소중한 추억이 깃든 식탁을 팔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식탁은 할머니에게 ‘제일 가족 같은 가구’였지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오래되어 마치 가족같이 오래된 가구(혹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 가구(혹은 물건)에 깃든 추억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가족 같은 가구
(혹은 물건)

그 가구(혹은 물건)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고, 글로 자세하게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 가구(혹은 물건)는
우리 가족과 관련한
어떤 추억이 담겨 있나요?

* 가구(혹은 물건)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사건을
써 봅시다.

*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할머니의 자리

박현정 장편동화 | 김다정 그림 | 별숲 펴냄



- 여러 사건 끝에 다 함께 살게 된 세 사람. 할머니, 엄마, 해봄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책 속 인물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써 주세요.

내가 정한 책 속 인물

누구에게 편지를 쓸 건가요?

Large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text entry.